

### 애니메이션 3화(삼성신화)

번호	배역	내용
02-01	하영	다녀오겠습니다~!
03-01	하영	(콧노래 흥얼거리기) 흥흥~ 흥흥흥~
05-01	하영	(즐거운 표정으로) 흐응~ 히힛
08-05	하르방	(음산하고 무겁게)이 책을 ㅁ·ㅁ냥 폐지 말라!
09-01	하영	(강한 빛에 눈이부신듯 낮게 신음한다) 으앗....
10-01	누리	아득ㅎ·ㄴ옛날, 제주에 아무도 살지 않을 때 삼성혈이렌 ㅎ·ㄴ큰큰ㅎ·ㄴ기·망서, 시 사름이 쑥 솟아났어. 이 사름덜이 지금 제주 조상인 '고을나, 양을나, 부을나'라. 할락산엔 산짐승도 하고 올때도 하영 싹기 때문에 사농을 좋아ㅎ·는 시 사름만 살기엔 먹을 케 충분했어. 경ㅎ·던 어느 날-
12-01	고	흐음... 이거 도대체 뭐고..? 상지 닳은디. 윈 올지 못ㅎ·키여.
12-02	양	이걸 올젠 ㅎ·른 어땡 ㅎ·민 텔 것 산디.
12-03	부	이레 줍서, 성님. 이 힘 좋은 막내가 올라보쿠다.
13-01	부	(힘을 주며) 으이이익!! 으아아아아압!!
13-02	부	(기함소리와 함께 돌을 내리친다) 하!! 차!!
13-03	부	(진동 때문에 이가 부딪히며) 으그그그그극!
13-04	부	(엄청 힘들어하며) 하아..아이고..하아..
13-05	고	(당황하며)보아ㅎ·니 보통 상지가 아닐로고.
14-01	부	(힘들어하며) 하아..하아..서..성님, 배고팡 힘 못 써쿠다. 퀘기 흔 점만 먹으면 저런 상지사 허끈ㅎ·게 올건디.
14-02	부	응?? 성님, 어디서 맛있는 내음 나는 거 닳지 아녀꽂?
15-01	부	쿵쿵...쿵..이 소꿍에 먹을 거 신 거 닳수다.
16-01	고	(침을삼키며) 꿀꺽..저..정말이가?!
16-02	양	(침을삼키며) 야, 느 콘 개코여.
17-01	고,양,부	(엄청 힘들어하며) 아이고,,하아,,아고아고,,
18-01	고	(무언가 발견한듯) 응??
19-02	하영	(해맑게) 안녕? 우리가 우리가 도와줄까?
20-01	하영	(신중하게 관찰하며 낮게 신음한다) 흐으으음....

21-01	고	이 상지 올라지키냐?
21-02	누리	흐음, 계메. 흥뽀 슬퍼봐사 흥·컨계?
22-01	하	누리야, 제주어로 “여보세요, 계십니까?”가 뭐야?
23-01	누리	응? “예, 예. 잇수과?”
24-01	하	“이래 봅서 잇수과?”
25-01	상자(사신)	“예, 흔저 읍서. 어디서 읍태가?”
26-01	하영	(신나서) 됐다!
26-02	고	우와! 상지가 말햐믈!
26-03	누리	난 하르방요정 누리라.
26-04	하	나는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사 온 하영이야.
27-01	상	아니우다. 상지 주인은 아닌 것 뉘수다.
28-01	고	나가 해보카?
29-01	고	(헛기침을 하고) 흠흠.. 날, 봅서. 잇수과?
29-02	상	누게짱?
30-01	고	난 고을나여. 삼성혈서 왔저.
31-01	상	아니우다, 주인은 시성제인디.
31-01	고	시성제?
32-01	삼형제	우린 할락산 정기를 반양 삼성혈서 태어난 고을나, 양을나, 부을나우다.
34-01	삼형제	(연기에 크게 기침을 하며) 콜록!, 콜록콜록!
35-01	사자	안녕 흥·우파?
36-01	삼형제	(연기에 크게 기침을 하며) 콜록!, 콜록콜록!
36-- 02	양	콜록! 아..니, 당신은 누게짱? 무사 이 상지 소곱서 나왓수과?
37-01	사	난 벽랑국서 온 사신이우다. 우리 왕이 서펜 바당 산이서 제주 조상이 뉘 신이 탄생흥·옛덴 흥·뉘. 장궐 못강 어려웁덴 이걸 전해주랜 흥·뉘디다.
38-01	고	이게 뉘우파?
38-01	사	올아봅서.
39-01	고	(강한 빛이 나오며 당황한다) 으아앗!

40-01	고	(빛이사라지고 놀라는) 헉! 이게 무슨..!
41-01	사	이 분덜은 벽랑국서 온 공주덜이우다.
42-01	사	부디 이분덜이영 혼디 큰 뜻을 이롭서.
45-01	사	하하하하! 그럼 부디 행복하시길! 하하하!(웃음 길게)
46-01	고	이...이거 경흥·난 어떻흥·랜 말고?
46-02	양	게메 말이우다. 우리 서이만 이 널른 땅에 살젠 흥·난 허전해신디 잘 뒤엇수다.
46-03	부	하늘이 도웻수다.
47-01	고	기여, 하늘이 도웻저.
48-01	고	(무언가를 발견하고) 응?
48-01	공주	(속쓰러워하며) 저....
49-01	고	(부끄러워하며 말을 더듬는다) 마, 말씀 흥·히서.
50-01	공주	삼형제도 배필을 구흥·지 못헤 고생헤덴 들엇수다.
51-01	고	(부끄러워하며) 경흥·긴 흥·니다. 무신걸 어떻 해사....
51-02	공주	(놀라며) 어맛!
51-03	고	(놀라며) 아앗!
51-04	하영	(해맑게) 방법은 하나!
52-01	하영	(한껏 신나하며) 결혼하면 되지! 히힛
55-01	하영	(환하게 웃으며) 헤헛..
57-01	고	우리 시 성제는 이제 각자 살 고단을 좇앙 떠나기로 헤저.
58-01	고	오닐 고마왓저이. 느 덕분에 장개가게 뒤엇어, 경 아니민 우린 평생 결혼도 못흥·르건디.
59-01	누리	어드레 갈 거?
60-01	고	(한숨을 쉬며) 그걸 결정 못 흥·크라.
68-02	양	가위바위보 해도 승부가 나질 아념찌게.
68-03	부	제비뽑긴 누게가 ㅁ·ㄴ치 뽑을 지도 몰르고.
68-04	고	경흥·난 느신디 어떻흥·는 게 좋을지 들어보젠 나왔저.
61-01	하영	응?! 나한테?

62-01	고	기여, 느 아니라시믄 우린 아뎡 흥·르지 몰람실겨여.
62-01	양	우리가 갈 질도 느 선택에 멧기는 게 좋덴 생각햐져.
63-01	고	츠·口말 오래만의 시 성제 의견이 맞앗져.
63-01	부	어뎡 흥·는 게 좋코이?
64-01	하영	(고민햐며) 흐으으음..
64-01	누	이 친구덜은 활쏘기 달인이어.
65-01	부	(자랑햐듯) 그 중에서도 나가 췌고지!
65-01	양	무신 소릴!
65-02	양/부	(서로 노려보며) 으으으!!
67-01	고	하하하! 실력은 비스름햐.
68-01	하영	음, 그럼 활로 시작한 운명, 활로 정햐는 건 어뎡?
69-01	고	활쏘기 시험이라도 흥·렌 말이냐?
70-01	하영	그게 아니라 하늘에 화살을 쏘 다음에 화살이 닿는 곳에 사는 거야.
71-01	양	멧진 생각인게.
71-02	부	어뎡 흥·난 우린 그 생각을 못햐지?
71-03	고	하영이가 정햐준 방법이난 냉중에 뜯소리 흥·기 엇져이.
74-01	고	(추억에 잠긴듯) 활락산 시커리서 갈라삿단 우리 모습 닳은게.
75-01	양	그뎡 노릴 좃양 갈라사냏주.
75-02	고	경 흥·민 아시덜아, 냉중에 보게이.
75-02	부	잘 지냄십서. 성님.
76-01	하영	잘가~! 고을나, 양을나, 부을나~!
77-01	하영	(갑자기 나타난 고서를 보며) 어?